

사스(SARS) 여파로 한약시장 기상이변 비수기 거래부진으로 거품시세 진정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중국산 한약재 수입이 급감하면서 국내 한약재 가격도 급등, 불과 20여일 사이에 40~50% 가까이 폭등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사스 처방약으로 사용되는 금은화, 창출, 백출 중심으로 시세가 오름세를 타기 시작, 방풍, 연교로 이어지면서 다른 약재들까지 덩달아 가격상승 현상을 보인 것.

사스 여파가 어느정도 수그러드는 5월말 현재는 다시 거품시세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거래부진에 여름 비수기까지 겹쳐 앞으로 1~2개월 사이에 국산한약재 시세는 다소 하락세 보일 것이라 전망이다.

작황부진에 햇것 출하량이 급감한 맥문동, 독활은 당분간 상보합세 전망.

강활 사스 여파로 덩달아 가격이 상승된 품목 중 하나. 그리 많지 않은 국내소비량을 감안할 때 남강활, 북강활 모두 물량부족 상황은 아님에도 지난 4월초 근당(6백g기준) 5천원(북강활 절), 5천5백원(남강활 절)선에 거래되던 강활 시세가 사스 이후 큰 폭으로 오름세. 5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 도매시세는 북강활(절) 6천~6

천5백원, 남강활(절) 근당 7천원 선으로 다소 빠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상보합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 시세는 다소 더 빠질 것이라 분석이 우세하다.

금은화 인동초꽃 금은화는 중국에서 불과 몇일 사이에 무려 열배 까지도 시세가 폭등하는 등 사스 처방약으로 소비가 급증하면서 돈을 주고도 불량을 구할 수 없을 만큼 품귀현상을 빚었던 대표적 품목. 국내에선 근당(6백g 기준) 8천원 선이 고작이던 금은화가 사스 열풍으로 근당 2만3천원 선까지 폭등했다. 5월말 현재 서울약령시장에서의 도매거래시세는 1만5천원, 최상품은 근당 2만3천원 선. 금은화는 건조상태, 색깔, 꽃잎과 잎사귀의 비율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사스 이전엔 근당 2천원 선이던 수입 금은화는 5월말 현재 3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당귀 5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당귀 근당(6백g 기준) 도매가는 일당귀(통) 1천8백원, 토당귀 2천3백원(통), 3천3백원(절) 선으로 지난 4월초 시세보다 다소 오름세. 과잉생산 영향으로 근당 1천5백원(통), 2천2백원(절) 선까지 떨어졌던 토

당귀 시세가 사스 영향으로 다소 회복세 보이고 있는 것. 거래 부진한 가운데 시세 당분간 보합세 전망되고 있다.

독활 5월말 기준 경동약령시장 내 거래 도매가는 근당(6백g기준) 8천5백원 선까지 폭등. 지난 4월초 4천5백원 시세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꺾총 뛰었다. 지난해 목은 것도 근당 6천5백원에서 7천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 이같은 독활 폭등세 원인은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고 물동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한 일부 장사꾼들의 계획적인 사재기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식품원료로 반입된 수입 독활 약 20톤 가량이 시중 풀리면서 시세는 당분간 보합세 전망되고 있다.

맥문동 지난 4월 중순경부터 햇것 출하 시작됐으나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시세는 상한가. 지난해 목은 것도 근당 6천5백원에서 7천원 안팎으로 거래되고 있다. 지난 3월말 근당 7천5백원 선이던 맥문동(거심) 시세가 4월 햇것 출하량이 많지 않자 근당 1만1천원 선에서 시작 청양 장날마다 1천원 폭으로 상승세를 타더니 5월말 현재는

청양산 거심이 1만5천원(대), 1만1천원(중)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밀양산은 1만5천원(대), 1만3천원(중) 선으로 상보합세 유지하고 있다. 청양산 맥맥은 근당 9천원 선. 처음 수확시기에는 생산량이 지난해 비 약 50% 수준으로 추정했으나 햇것출하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맥문동 올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세는 점차 오름세를 기록했던 것. 밀양산이 오르자 청양산도 더불어 꺾총 올랐다가 최근 경기침체로 거래부진한 가운데 찾는 사람이 없어 청양산 시세는 다소 하락한 양상이다.

목과 오는 7,8월경에 햇것 출하가 시작될 목과는 5월말 현재 서울약령시장 내에서 근당(6백g 기준) 1천5백~1천7백원 선에 도매거래 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4월초 근당 9백원 시세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햇것 물량이 출하돼 나오기까지 시세는 당분간 상보합세 유지될 전망이다.

방풍 사스 여파로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는 품목 중의 하나. 지난 3월말 까지만 해도 서울약령시장에서 원방풍이 근당(6백g 기준) 8천5백원, 식방풍은 1

천8백원(절) 선으로 비교적 약보합세에 도매거래 됐으나 사스 처방 약재들의 오름세 열풍을 타고 시세가 폭등했다가 다소 수그러든 5월말 현재는 원방풍이 근당 9천5백원, 식방풍이 근당 3천원 선에 서울약령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백출 사스 처방약으로 소비량이 급증했던 백출은 중국에서조차 물량이 부족해 오히려 한국에서 역수출 되기 까지 했던 품목. 지난 3월말 근당 1만3천5백원 선이던 토백출 절품 시세가 사스 처방약으로 알려지면서 소비가 급증, 불과 20여일 사이에 1만7천원 선까지 거래됐으나 5월말 현재는 서울약령시장에서 근당 1만4천8백원(절 상품), 1만3천5백원(절 중품) 선으로 다소 시세 빠진 상황. 중국산 백출은 손백출이 근당 2천2백~2천5백원 선, 기계백출은 2천~2천2백원 선에 시중 유통되고 있다.

지황 5월말 현재 서울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지황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5천8백원(대), 5천원(중), 선으로 지난 4월초 5천5백원(대), 4천5백원(중) 시세에 비해 다소 오름세 보이고 있다. 반면 건지황(소)는 지난 4월초 근당 4천원 선보다 큰 폭 하락한 3천원 선이다.

천궁 생산과잉으로 바다세를 형성하고 있던 일천궁 시세가 사스 열풍 이후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5월말 현재 서울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천궁 상품 근당 도매가는 지난 4월초 시세인 3천3백원보다 1천원 폭으로 오른 4천3백원 선. 중품은 3천7백원 선에도 거래된다. 반면 토천궁은 상품이 1만5백원(절), 중품은 9천원(절), 토천궁 통자는 근당 9천5백원 선으로 다소 내림세.

황기 5월말 현재 서울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1년근 소황기 시세는 근당(6백g기준) 6천~6천5백원 선(절품). 통황기는 그보다 높은 7,8천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5월초 영천시장에서 약 10만근 가량의 물동량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그때만 해도 근당 5천원 선이던 소황기 시세가 근당 6,7천원 선으로 상승했다가 최근 사스 열풍으로 인한 거품시세가 가라앉으면서 황기 시세도 다소 빠진 상황이다. <문정희>

중국약재 시장동향

사스 발생 이후 가장 심했던 4월 초순에서 4월20일까지 중국의 약재는 사스 예방 및 치료제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폭등하였으나 중국정부의 가격억제 정책으로 거품이 빠진 상태에서 5월말 현재는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황임. 일반약재도 값이 덩달아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 대부분 약재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스 발생지역을 격리하고 약재시장을 폐쇄함으로써 중국약재 시장은 아직 냉각상태다.

야생 창출 출하량 급감

○...중국정부에서 자원보호차원에서 야생약초 채취를 제한함에 따라 야생 창출 출하량이 급감. 시세가 지난해 연말 kg당 3~4원(위엔)에서 점점 오르기 시작, 지난 4월엔 8.5~9원. 사스 출현 이후 80~90원 까지 무려 900% 가까이 폭등했다가

5월말 현재는 다시 9원으로 거품시세가 빠진 상황.

연교 시세도 덩달아 평중

○...연교는 지난 2월 사스 출현 초기만 해도 물동량에 비교적 무리가 없어 kg당 8~11원 선이었으나 사스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발병지역이 확대되면서 소비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 4월말 경엔 30원 까지 시세가 폭등하기도 했다. 거품시세가 점차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5월말 현재 시세는 약 20원 선이다.

금은화 300元까지 폭등

○...연초에 kg당 18~22원 수준에 거래되던 금은화가 사스 창궐 이후 처방약으로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아침에 30원 시세가 저녁나절에는 60원으로 폭등, 다음날에는 150~180원으로, 안국 약재시장에서는 최고 260원까지, 북경에서는 금

은화 kg당 시세가 무려 300원까지 치솟았다. 최근 5월말 현재는 시세가 많이 진정돼 kg당 50원 선이다.

황기 소비량 급증

○...황기 역시 사스예방약 처방전에 포함돼 발표되면서 소비량이 급증, 빠르게 시세 폭등한품목. 평소 kg당 8~9원 선이던 황기가 19~20원까지 올랐다 최근 5월말 현재는 다시 거품이 빠진 10~13원 선에 안국 약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복사삼 다소 하락세

○...복사삼은 시장 유입량이 증가하여 시장가격이 연초에 비해 다소 떨어져 있는 상황. 물동량은 줄지않고 비교적 원활한 편이라 지난 4월말 내뭇고 산이 25~27원, 하북산은 28~30원 선을 형성해오다 5월말 현재는 하북산이 kg당20원 수준으로 다소 하락세 보이고 있다.